종교성에서 영성으로의 탈출

(시편 84:1~12)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종교성에서 영성으로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종교성에서 영성으로의 탈출'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성을 종교성으로 대체시켰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이 강조되면서 영성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영계(靈界)와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성에 머무르는 한 오히려 영계와는 완벽한 단절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는 영적 세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하여도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이신 하나님과는 결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영적인 세계와 관계된다고 믿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영계와 관계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버리고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성은 강할수록 좋거나 혹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류의 성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성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표기가 기독(基督)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나의 영성으로 만든 상태가 구원입니다. 종교성은 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죄 하에서 인간이 창조해낸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성과 종교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이름 모를 순례자가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받아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애절한 심정이 토로되고 있는데, 영성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 길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성은 Religiousness이고 영성은 Spirituality로서 서로 다르게 표현됩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성은 곧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종교성은 세상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싶은 마음뿐이라면 그것은 세상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성은 영계로부터만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성향이고, 세상성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속성입니다. 종교성은 이 세상성에 의해서 생겨난 부산물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세상성의 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계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토속적인 무속신앙 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찾는 영계는 마귀가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영혼(Ghost)”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죽은 애인의 영혼을 무당을 통해서 만납니다. 죽은 애인의 영혼이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만남을 이루는 내용인데 모두 마귀의 장난입니다. 또한 무당이 죽은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어머니의 혼이 내려온 것 같겠지만 이것도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어머니를 알고 있는 대로 흉내를 내어 혼미케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심을 찬송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든 죽은 자의 영혼도 주관하시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영계를 구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계로부터 쫓겨나서 떠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영성과 종교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통해서 제시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성이 하나님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이라면 시인은 왜 구태여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애끓는 심정으로 노래하는 것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대로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성전을 사모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이것을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으로서 오해해왔습니다. 예배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종교성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온 것이 영성의 결과인지 종교성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영성은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교회가 약화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세상에 나가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예배당 안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심거리를 끌어들여서 예배당에 있는 시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배는 약화됩니다. 그 중에 사람을 끌어들임으로 부흥을 이루어 대형교회로 성장하여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만 결국 교회 전체는 축소되고 쇠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지 못했고, 영성을 종교성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삼층으로 된 이 세상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봅니다. 삼층 구조는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중은 우리의 마음이 속한 차원이며, 땅은 우리의 육신이 속한 차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중의 차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할 것인가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로 살고 있는 삶에 마음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육체가 살아가는 이 땅으로부터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층 구조에서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만 삼층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동안 육체가 남아있는 땅은 하나님의 직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역사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육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되어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인류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 책임지고 기도도 하고 성취를 위해 추구해야 하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활동 현장입니다. 다만 내 몸과 언어와 생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장갑 삼으셔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주머니가 되고,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마이크가 되고,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장갑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제2의 창조의 활동을 해나가시는 장소가 바로 육체가 속한 땅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영계에서 쫓겨나서 공중을 떠돌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마음 채움을 위해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하게 하고 그곳에서 접하는 것들로도 얼마든지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갔으며 이 속임수가 마음에 믿음으로 체질로 자리잡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전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성에 반대되는 세상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성이 종교를 만들어낸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에 원죄의 체질 즉 세상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초월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칸트는 이러한 성향을 철학적 용어로 “요청(Postulation)”이라고 하였습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칸트의 요청은 도덕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요청이기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은 요청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요청을 위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성은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상태에서 초월자를 부르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영성은 초월자로 만족하려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종교는 마귀가 만들어낸 허구의 영계를 믿게 하는 수단입니다. 실제로는 철저하게 세상성 안에 갇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계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며 두 분간의 교통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부활하여 임하게 될 하늘나라를 약속 안에서 선취적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이를 나타냅니다. 천국의 빛을 보기만 하여도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비전과 꿈을 망각해버릴 정도로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삼층 구조는 곧 인간 실존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몸이 어디에 있든지 삼층 구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음으로서 철저하게 하늘과 공중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빛이 완전히 차단된 흑암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손으로 더듬으면서 마음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는 암중모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퍼스(Sisyphus)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영원히 받은 것과 같은 저주의 삶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지옥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마련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전 의미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백을 채우기 위한 흡입구를 땅을 향하게 되었고 이것이 체질로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이 향하는 이 땅에 성전을 세우셨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가족 건강 명예 등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의 사이에 성전과 주님의 십자가가 서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많은 세상의 가치들 중에서 굳이 성전과 십자가를 향하는 자들이 곧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면 세상에 대한 마음은 죽어버립니다. 세상성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 죽어버린 마음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과 함께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 하늘로 가는 대로가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본래 공중에 있는 마음이 곧바로 하늘로 향해야 했지만,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인류의 마음은 땅을 향해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늘로 통하는 대로를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성전을 사모한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야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없습니

다. 마음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특정 종교의 신의 이름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번제단에서의 죽음이 없다면 내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가치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돈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마음에 세상성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종교의 신일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며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퇴색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다니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이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럽에서 예배당이었던 건물들이 시청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사찰이나 유흥시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오직 모임을 위해 제공되었던 공간일 뿐, 그 건물 자체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흡수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십자가 안에 있지 결코 이 세상 건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예배당 안에서의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종교성을 비대하게 확장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영성을 잃은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로 무장시키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만을 늘리려고 하니 교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토록 성전 사모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번제단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탐하는 세상성의 기질이 활성화되는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 유전죄를 죽이고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마음은 삼각관계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몸을 포함한 세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는 곧 오늘 말씀드리는 삼층 구조를 평면화한 모습이고 삼층의 세계는 삼각관계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계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계에서 쫓겨난 타락한 마귀들은 마치 종교가 영계에 관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허구의 영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당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을 한다고 해서 결코 어머니의 영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머니를 가장하여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통제되고 있습니

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것도 마귀가 사무엘을 가장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말 중에 진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칭한 것처럼 마귀도 아는 진실을 그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이 계신 영계 외에 또 다른 영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종교성은 마귀의 장난일 뿐이며 세상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세상 것을 가짐으로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신을 창조해 내고 종교를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마음에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실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유일한 시온의 대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성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했고 십자가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갖는 영성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종교성에 묶여있는 주님의 교회를 출애굽 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종교성을 완전히 탈피하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영성적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